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 1 면 -

시사프리신문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의회에서 첫 답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 대처하겠다
내년도 예산확보 차질로 무상급식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게 돼 양해를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달 29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구의원들이 한 구정질문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강북구정을 맡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구의원들 앞에 처음으로 답변을 하는 자리였던 만큼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하자마자 박 구청장이 본회의장 앞으로 나가 시작한 답변은 오전에도 끝나지 않아 점심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오후 2시 16분 경 구청장의 답변이 끝났으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끝나 특히 한나라당과 군소정당 의원들로부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의 질의에 박겸수 구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중학교 추가유치

내년도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겨 먼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절차를 걸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50%,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관련조례에 대한 제·개정도 추진하겠다.

부족한 학교 건립문제는 내년 3월 삼각산고교와 성북구 하월곡동에 송곡중학교가 개교하며,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학교 부지를 더 확보하여 중학교를 추가로 유치하겠다.

우리구는 인구 대비 CCTV 한대당 500명으로 높은 수준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우범지대에 CCTV를 집중 설치하겠다. CCTV 모니터 요원의 채용은 현재 예산 편성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CCTV 증설은 공익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구 CCTV는 올해 151대 설치분을 포함하여 총 358대가 운영중이며 2014년 말까지 총 677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동장 인사발령 시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자 구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길게는 2년 2개월부터 짧게는 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동장을 전원 전보발령 조치하였다. 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조차 어려운 3개월 만에 다시 전보발령을 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센터의 경우 전임 동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되었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번 상반기에 승진 내정된 행정민원팀장을 7월 1일자 승진발령과 함께 동장으로 임명하여, 임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토록 한 후, 9월 13자 정기 인사발령시 타 주민센터의 동장과 함께 전보조치 한 사항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구정참여사업을 공모하여 단체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 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도서공급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서 구민들로부터 집에 있는 도서 기증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기업체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도록 하겠다.

지난 경로잔치에서 어르신들께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다소 기다리시게 한 점에 대해 일부 사전공연과 공식행사의 진행으로 약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으로 타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은 구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0년 7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된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을 금년내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 증도금, 하반기에 잔금을 지급하겠다. 미아뉴타운(강북 6구역)내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1천500㎡(454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2010년 6월 완료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주변 환경, 경제성 분석, 건립규모, 시설배치,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중에 있다. 미아뉴타운(강북 6구역) 문화센터 건립에는 약 2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미아동 복합청사에 보건분소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 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사업변경과 투자금액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청사 1층에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와 상담이 가능한 건강증진센터를 마련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모유수유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현신학교 기본계획서가 시달되면 강북구에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인권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많은 재정과 인력 등이 수반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정책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겠다.

〈7면에서 계속됩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정질문 답변②

〈1면기사 이어집니다〉

◆경로당 쌀 추가지원은 검토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과 노인회관 건립부지를 맞교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구는 현재 총 92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쌀 20kg 2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억원이다. 추가지원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현재 조사결과,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공공기관 80%, 민간시설 75%이며 전체 설치율은 76%이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제고가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우리구 환경미화원 수는 2004년 173명에서 매년 10여 명씩 감소하여 2010년 10월 현재 126명이다. 상기 기간 중 2007년에 한 차례 충원하고 그 후에는 충원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발생 시 민간위탁확대 또는 충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직영미화원 휴게실을 대행업체 미화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협소와 미화원간의 위화감 조성, 관리상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기적으로 휴게실을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조정교부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건의

우리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60여 곳인데,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는 방향으로 SH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

금년도 우리구에서 시행한 관급계약은 3/4분기 현재 공사 126건 112억, 용역 123건 50억, 물품 118건 44억으로 총 367건에 206억원을 발주 계약하였다. 이중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포함한 일반입찰 계약은 119건 148억원이고 수의계약은 248건에 58억원이다.

특히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55건에 8억2천1백만원으로 전체 수의계약 대비 약 22%로 2009년도 17%에 비해 다소 증가 되었다. 수의계약 현황을 공사·용역·물품구매별로 분석해 보면 공사는 68건중 관내업체가 37건으로 54.4%이고, 용역은 87건중 4건 4.5%, 물품은 93건중 14건으로 15%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관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다소 상이한 것은 공사의 경우 발주금액이 소액으로 공사내용의 대부분이 건축의 소규모 개·보수로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이 많이 이루진 결과다. 앞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관내에 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고로 매년 많은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저 또한 우리구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겠다.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은 34만 강북구민 모두의 구청장으로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구민 누구와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강북교육지원청, 강북세무서로 바꾼다면 도봉·성북구에서의 이의제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관할구역과 청사의 위치를 고려하여 강북·성북교육지원청, 강북·도봉세무서로 변경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11학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이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겨 초등학교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구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지만 포퓰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매니페스토 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태스크 포스(TF) 팀을 구성하여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사업을 선정, 완료시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8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정감소분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보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8월초 서울시의장 구청 방문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지난 9월 14일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건의,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발로 뛸 각오가 되어 있다.

대형마트 및 SSM의 상권확장에 따라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데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및 구비 84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12개 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전기·소방설비 개보수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13억4천만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7개 시장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특별판매 이벤트사업, 상인아카데미 교실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삼양시장은 정비사업이 준공시점에 일반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을 진행중이다. 삼양시장 주변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점포의 물류센터 공동이용방안 강구, 공산품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강북구 중소상인연합회 결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강북구에 대형마트는 없으며, SSM은 9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도지구 완화 위해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

지난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한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문화개선 조사연구 용역결과 북한산성주차장에서 승가봉을 거쳐 보현봉 구간(4.2㎞)이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최적 코스로 나왔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은평구와 고양시 등에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이한 추진사항은 없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동향과 우리구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도록 하겠다.

10월1일 권역별 종합발전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직접 현황설명을 하고 건의하였다. 또 우리구 출신의 김정중 신승호 시의원을 통해서 울특별시장에게 건의토록 협조 요청하고, 제가 10월 22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도시관리국장을 면담하는 등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발표되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미삼역 에스컬레이터는 하수박스 때문에 설치 어려워

현재 건설 중인 번2동 공영주차장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주택들에 대해 2010년 10월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여 보상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미아역 동쪽 지역은 주차장 보급률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 짧지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단장 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에 역점을 두어 2004년부터 추진하여 711기구에 주차 1천306면을 건설하였다.

노점 단속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인력은 9명으로 일반 내근업무 5명, 운전원을 포함한 기동순찰 외근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노점 강제정비 시 노점상의 저항 및 노점연합회의 무력시위 등 집단행동에 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노점연합회의 집단반발에 대비하고 야간 및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신규노점 단속을 위해 민간용역원 6명을 활용,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미아삼거리역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지점 지하에 하수박스가 위치하고 있고 공사하게 되더라도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내에 1개 차선을 잠식하여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심의 시 불허된 사항으로 다른 역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아역은 1번 출구 강북세일교회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현재 국가부담사업 30%를 지원하는 병의원의 참여 및 확대를 높여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민간시설인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건소 무료 필수예방접종의 홍보활동과 원거리 대상자의 보건소 셔틀버스 이용 등으로 편의를 증대하고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등록환여를 유도, 독려하는 등 보건소 무료예방접종을 더욱 강화하겠다.

◆무료예방접종 더욱 강화할 것

보건소 예방접종 외 병의원 예방접종 신고율을 감안하면 20% 정도의 아동이 접종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현길 자전거 도로는 『북서울꿈의 숲』건설과 함께 지역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월계로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영중에 있다. 서울시 자전거 관리부서와 우리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결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펜스 92m를 제거하였으며, 펜스가 남아 있는 일부 구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선유도봉 2~3개씩 설치하였다. 오현길 자전거도로의 2010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 14건과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 1건이 있었다. 교통량은 출·퇴근시 시간당 약 1천200~1천300대로 자전거도로 건설 전·후의 교통량 변화는 거의 없으며, 자전거 교통량을 평일 65대, 휴일은 103대로 조사되었다.

동북일보

"주민자치위 고문은 덕망있는 자를 동장이 임명해요"

수유1동 11월 월례회에서 우종오·최훈 고문 위촉장 전달할까?
박성열 강북구의원 구정질문에 황치선 행정관리국장 동장 권한으로 답변

박성열 의원이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첫날인 10월 28일 본보 9월 27일자에 보도했던 "수유1동 자치위원회 2명의 고문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 시의원의 압력을 받아 동장으로부터 위촉장도 받지 못했고 월례회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근거로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은 누가 위촉하며, 위촉하기 전 누군가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를 질문한데 대해서 10월 29일 둘째 날 본회의에서 박 구청장 대신 황치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했다.

황 국장은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받고도 동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판결 수준의 해답은 제시하지는 않은 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관련조항을 읽고 해석하는 수준에서 답변했다.

즉, 동 조례의 제17조 2항 및 5항에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위촉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문의 경우는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덕망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수유1동의 고문 위촉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위촉은 해당 동의 동장이 덕망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하며 넘어간 것.

지금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이천우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최훈 직전 위원장과 우종오 전 강북구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동장이 위촉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황 국장은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위촉사항은 전적으로 동장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키며 공을 다시 해당 동장에게 넘겼지만 오는 11일에 있을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연 위촉장 전달식이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다. 만일 현재 위원들의 추대를 받은 두 고문들이 이번에도 위촉장을 받지 못한다면 동장이 그들을 덕망이 없는 자들로 판단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유1동에서는 그때 같이 선임된 반제환 부위원장에게도 부위원장 직함의 명패를 만들어 주지 않아 월례회 때마다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새로 발령을 받은 한유우 동장은 정치적인 사안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고문 위촉장 전달도 부위원장 명패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는 한 동장이 부임하기 10여 일 전 열려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 2명을 추대했으나 인사이동을 염두에 둔 김모 전임동장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기로 한 9월 월례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고 후임동장에게 미뤘다.

이 과정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정중 시의원이 새로 구성된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임원과 고문이 한나라당 위주라는 이유로 신구 동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제환 부위원장은 기자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사퇴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본보 기자에게 신구 동장들에게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반제환 부위원장에게는 한나라당 동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적은 있다고 시인했다.



▲박성열 의원이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대받은 두 고문을 위촉하지 않는데 대해 구정질문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천우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임원을 맡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정당의 색깔을 나타내는 곳도 아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 돈과 시간을 바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인데 정치적인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어 유감이다. 그렇다고 구청장의 임명을 받는 동장을 탓하고 싶지 않고 충분히 이해한다. 동에서 부위원장 명패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회의 때 명패를 만들어 주겠다."

〈허성수 기자 sungshuh@hanmail.net〉

시정신문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제146회 임시회를 지난달 28일 개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6대 의원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 첫날에는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됐다. 또 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6일간은 현장활동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강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정신문



인수동 경로위안잔치 참석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2일 솔로몬 가든에서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2010년 인수동 경로위안잔치'에 참석,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일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본부' 출범

강북구, 자녀들의 건강·행복권 추구 위한 친환경 급식 실현

강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집행위원장 권용수)는 지난 2일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부터 강북구에서의 원활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를 위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 본부의 설립취지에 뜻을 함께 하는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북구공부방협의회, 북부교육희망네트워크를 비롯한 23개의 단체 관계자들과 민주당 박진형 김기옥 서울시의원과 김도연 최선 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옥성 공동대표(복사·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6·2 지방선거를 거쳐 친환경무상급식은 학생들의 행복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있어 큰 화두가 되어오고 있다"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 1호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실시되야 하지만 난관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강북구에서 차질 없이 실시되는데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추진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강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는 지난 2일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한 역할을 다짐했다.

또 배옥병 전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에 민관협력의 과제가 있는데 강북구가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게 된데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에 동의하는 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협약식을 가질 것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급식법의 입법화를 촉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과 공급망 설치 및 확보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친환경 우리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안전한 급식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82-93%에 달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을 선물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북부신문

서울행정법원, "구의원 의정비 34억9,000만 원 반환하라" 판결

서울시 11개 자치구의회 의원 177명 의정비 부당 징수해

도봉구의회, 2억9,900만 원, 강북의회, 2억1,900만 원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주민들이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들이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14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1개 자치구청장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의회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할 의정비가 34억 9,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사진·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됐으며 11건은 주민소송단 1심 승소, 2건은 기각, 1건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일부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이에 주민들은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인상했다며 구의원 의정비 등을 환수하라고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민소송단(원고)이 승소했다.

'ㅇ'구 경우, 전년도 대비 2008년도 의정비를 75% 가까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ㅇ'구에 재발방지 등의 조치만 그치고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ㅅ' 구 경우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가 환수조치 결정을 했으나 'ㅅ' 구청이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주민소송단 승소로 강서구의회 의원은 강서구청에 반환할 금액이 4억3,4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작구의회 의원 3억6,800만 원, 성동구의회 의원 3억6,000만 원, 은평구의회 의원 3억4,700만 원, 양천구의회 의원 3억4천,400만 원, 성북구의회 의원 3억4,300만 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용산구의회 의원 3억400만 원, 도봉구의회 의원 2억9,900만 원, 서대문구의회 의원 2억4,600만 원, 금천구의회 의원 2억2,500만 원, 강북구의회 의원 2억1,900만 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들 자치구 중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구는 용산구(60.4%) 성동구(51.0%) 양천구(50.8%) 3곳 뿐이다. 특히, 금 천 구 (37.4%) 도 봉 구 (37.2%) 은 평 구 (35.3%) 강북구(35.0%) 강서구(32.9%)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자료를 공개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기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